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특성을 활용한 패션 슈즈 일러스트레이션

최연수 · 제갈미* · 이연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박사후연구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교수**†

Fashion shoes illustration applying characteristics of David Hockney's painting

Yonsoo Choi · Mee Jekal* · Younhee Lee**†

Master's degr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Post-Doc., Major in Human-Tech Convergenc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Professor, Major in Human-Tech Convergenc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2021. 9. 15 접수; 2021. 11. 18 수정; 2021. 11.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David Hockney's paintings to fashion illustration and thereby, review how pure art can be harmoniously grafted onto fashion commodities and thereupon, suggest a far more developed and unique fashion illustration. For the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David Hockney's late painting works, after the 1980s; the analysis was focused on photo collages, multiple perspectives, the movement of the viewpoint, and lights and colors. In order to produce an artwork, the researcher selected 4 painting works; one work for decade for the period from the 1980s to the 2010s. This study selected 'shoes' as subjects for expression in an effort to depart from the convention approach of focusing on apparel and thereby, suggest some differentiated fashion illustrations. In terms of the artwork production size, four canvases #5 were combined into a set, and thus, a total of four sets were develop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y interesting to develop a fashion illustration making use of David Hockney's paintings, and it was proven that the fashion illustration applying the sensitivity of the pure art would provide a unique sense of art. Secondly, as the boundary among disciplines becomes blurred, painting provides a new source of insights and motifs to the diverse design areas to satisfy diversified human needs, and furthermore, the development and diversified application of the fashion illustrations could be confirmed. Thirdly, David Hockney's differentiated world of art, technique of expression and sensitive colors could well be applied to fashion illustrations. This study proves that we fashion artists can depart from the conventional expressions focused on the apparel to expand the fashion illustration into lady's high heels.

Key Words: David Hockney's late painting(데이비드 호크니 후기 회화), fashion illustration(패션일러스트레이션), shoes(구두)

† Corresponding author; Younhee Lee
Tel. +82-2-2220-1195
E-mail: yiyhee@hanyang.ac.kr

I. 서론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상업성만이 아닌 독자적인 예술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표현 범위가 다양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실적인 묘사를 중시하는 사진과는 달리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과 개성 있는 표현이 시도됨으로 소비자들에게 의도한 것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독창적 비주얼을 표현 할 수 있다(정효신, 2016).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의 차별화된 형상을 평면으로 표출한 조형예술이며, 의복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을 포함하는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 등 전반적인 패션의 시각 이미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반한다(허승연, 2019).

최근 패션 분야의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주체나 아이템들도 다양하게 적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가들과의 협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작업과 연구가 필요하다.

버버리 프로섬은 2014년 S/S 시즌에 10년 만에 런던에서 선보인 맨즈웨어 컬렉션에서 'Writers and Painters'의 주제로 영국의 앨런 베넷(Alan Bennett)과 영국의 대표적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에게 영감을 받아 가장 영국적인 컬렉션을 완성시켰다는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크리스토퍼 베일리(Christopher Bailey)는 앨런 베넷의 지적인 스타일링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현대적이고 높은 채도의 인상적인 컬러에서 영감의 원천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영국 신사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Tim Blanks, 2013).

휴고보스(Hugo Boss)는 2017년 S/S 시즌 우먼 컬렉션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풀 시리즈(pool series)'의 비비드한 컬러감과 건축학적인 선을 이용해 브랜드 특유의 볼드한 컬러와 정교한 기술을 표현했다고 평가받았다(정효신, 2017) 또한 플래시드웨이브 코리아가 전개하는 플래시(PLAC)은 뉴욕 패션위크에서 2017년 S/S 컬렉션을 공개하면서, 데이비드 호크니에게 영감을 받아 그의 '수영장 시리즈'를 모티브

삼아 60~70년대 클래식한 스타일을 브랜드의 느낌으로 재해석해 편안하고 웨어러블한 스타일의 맨즈웨어와 리조트룩을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양지선, 2017). 이와 같이 최근 패션 분야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영감을 받거나 협업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비드 호크니 회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응용한 패션 슈즈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전개하여 다양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크니의 작품 중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는 '풍경화' 작품에 주목하여 회화 특성을 패션 슈즈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하고자 한다. 패션 액세서리로서 슈즈는 패션을 완성시켜주는 이상적인 아이템으로 각인되기도 하며, 전체적인 패션 스타일링을 위해 패션 아이템으로써 슈즈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슈즈를 활용한 슈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와 작품 제작은 패션 액세서리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활동 및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작품 세계와 작품 특성을 고찰하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특성을 1960년대부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분류하고, 후기 회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데이비드 호크니 후기 작품 특성을 응용한 패션 슈즈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16점을 전개하였다. 작품 자료의 수집은 데이비드 호크니 홈페이지(<https://www.hockney.com>)와 다양한 회화 관련 등을 참고로 수집하였다.

II.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1. 데이비드 호크니 회화의 시대별 특성

데이비드 호크니가 작가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은 영국 대중문화의 전성기였으며, 그는 영국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hire) 지방 브래드포드(Bradford)에서 출생하여 브래드포드 미술 대학과 런던 왕립 칼리지를 졸업했다. 호크니는 1960년대 영국에서 앨런 존스(Allen Jones), 피터 블레이크(Peter Blake) 등과 함께 60년대 영



〈그림 1〉 Doll Boy,
1960-61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2〉 Beverly Hill Housewife, 1966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3〉 A Bigger Splash,
1967.

(출처: <https://www.hockney.com>)

국 팝 아트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윤대영, 1999). 또한 영국 리얼리즘에 기반한 포스트모던 시각 언어로서 당시 추상표현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술사의 주류 담론을 비판하여 호크니만의 미적 존재감을 확연하게 드러냈다(전영백, 2018).

자신의 작품이 틀에 갇힌 형식에 메이지 않기를 원했던 호크니는 회화, 데생, 판화, 사진, 영화, 무대 장식, 일러스트레이션 등 모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팝 아트와 사진을 통해 사실주의 표현기법을 나타내는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해졌지만, 1980년대 이후 풍경화 작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같은 스타일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을 살펴 볼 때, 그 부분만으로 평가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활동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작품 특성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그특성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작품의 특성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60년대

호크니는 대부분 영국 팝아트를 대표하는 인물로 많이 언급이 되어왔지만, 1959년부터 1960년대 초반의 작업에 나타나는 저항적 성향은 당시 추상 미술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매우 독보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며, 호크니 회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김행

지, 2012). 1959년 런던 왕립 미술학교 재학 당시, 전통적 회화 기법인 구상회화, 사진, 모더니즘 추상 작품 안에서 이집트 양식을 응용한 작품과 동성애적 성향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초기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형상 대신에 문자 삽입을 통해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점차 모더니즘 회화의 추상적 표현에만 치중되는 것을 저항하고자 하였다.

호크니는 1960-70년대 초기회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회화작품들을 다수 발표했는데, 'Doll Boy'〈그림 1〉 연작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으며, 잘려나간 단어나 압축화된 숫자 온전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불안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정미정, 조기주, 2016). 호크니는 1960년대 초 동성애적 성향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인정하기 시작함으로써 추상적인 난해한 상징들을 숨김없이 표출하였다.

1964년 당시 26세였던 데이비드 호크니는 미국 여행 이후 매료된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캘리포니아의 풍경과 빛, 그리고 색채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를 거쳐 자연주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이전 초기 회화에서 두드러졌던 동성애적 성향의 작품 스타일에서 벗어나 초상화 작품과 캘리포니아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표현의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호크니만의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자연주의 회화 작업을 나타냈다(이재은, 2013). 1966년까지의 작업에서는 대체적으로 구상과 추상표현이 혼합된 형태의 작품



〈그림 4〉 A Large Driver (Paper Pool 27), 1978
(출처: <http://www.davidhockney.com>)



〈그림 5〉 Mr. and Mrs. Clark and Percy, 1970-71.
(출처: <http://www.davidhockney.com>)

이 많았는데, ‘Beverly Hills Housewife’〈그림 2〉 등의 작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페이퍼 풀(Paper Pool) 시리즈 중 1967년 작품 ‘A Bigger Splash’〈그림 3〉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수면 위로 물이 튀어 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호크니를 다시한번 주목받게 하며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업을 통해 회화의 2차원적인 평면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원근법과 그림자의 표현 없이 평면적으로 처리된 표현에서 이 장면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순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호크니는 회화의 평면성, 회화가 2차원의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2) 1970년대 회화

페이퍼 풀의 연작 ‘A Large Dive’〈그림 4〉에서도 호크니의 물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는데, 종이 펄프 반죽에 색을 혼합하여 만든 재료로 찍어내듯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번짐과 맑은 색채 표현으로 물의 투명함과 순간적인 움직임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1970년대는 6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페이퍼 풀의 연작 ‘A Large Diver’〈그림 6〉에서도 호크니의 물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다. 종이 펄프 반죽에 색을 혼합하여 만든 재료로 찍어내듯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번짐과 맑은 색채 표현으로 물의 투명함과 순간적인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하상희, 2014).

1970년대 데이비드 호크니는 자연주의시기에

주로 작업한 인물 초상화에서는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작품의 크기로 공간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Mr. and Mrs. Clark and Percy’〈그림 5〉는 214x305cm의 상당히 큰 사이즈로, 작품 속 인물들이 실제 사람 크기와 비슷하다. 아크릴로 그려진 대형 2인 초상화에 주인공들은 호크니와 시선을 맞춘 듯한 시선 처리와 편한 자세이지만 경직된 듯한 표정을 보여주며 주인공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미묘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호크니는 집중력 있는 관찰력을 표현해냄으로써 관람객들이 작품이 아닌 실제의 공간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여 관람객들과 공간을 통해 소통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호크니는 사망한 피카소에 대한 경의와 영향으로 자연주의 회화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다. 호크니는 자신의 작품의 구성주의 문제에 피카소의 예술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소재에 대한 작업은 큐비즘을 도입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큐비즘 회화와 사진을 조합하는 구성은 ‘움직이는 시점’이라는 새로운 시점을 이용한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호크니는 파리로 떠나면서 그림 작업보다 사진의 입체 표현으로 관심이 이어졌으며, 모자이크와 비슷한 ‘그리드(grid)’ 형식으로 구성되어 1970년대 초반부터 폴라로이드를 이용한 작업을 토대로 포토 콜라주 작품을 제작하였다. 1972년의 회화에서 사진이 가진 빛과 평면, 그리고 인화를 통한 색채를 연구하였으며, 사진이 가진 시간과 공간, 인식의 오류를 인지하였다(임도현, 2007).

3) 1980년대

데이비드 호크니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사진기재와 디지털 매체의 실험은 회화라는 고전적 미술 언어를 언제나 시대와 맞는 방식으로 다뤄온 그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러한 폴라로이드 콜라주 작품에서는 흰 격자와 노출의 차이, 선명도 등을 이용해 원근법을 만들었고 시점을 움직여 평행선에 가까운 원근법을 만들어냈다. 불규칙한 선들을 통해 인물의 형태를 중복하거나 확대, 복사하였다. 또한 폴라로이드 콜라주의 흰 격자 프레임은 전체 화면을 커보이게 하면서 공간이 확장된 느낌을 주었다. 흰 격자는 작업의 한계성을 느끼게 했고 사진작업에서 다중 시점을 이용한 원근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진 속 인물이 만들어 내는 선과 카메라의 노출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사진을 겹쳐 중첩 효과를 내면서 형상을 왜곡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원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진 작업은 1982년 폴라로이드 콜라주를 시작으로 1986년 포토 콜라주 작업까지 진행되었다(이정은, 2007).

초기의 포토 콜라주는 친구의 초상, 광대한 풍경, 서술적 초상을 담아냈고 1982년 폴라로이드 사진을 사용하여 합성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사진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120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구성된 'David Graves Pembroke Studios'〈그림 6〉와 어머니의 잠자는 모습에서 나른함을 표현한 'My mother sleeping'〈그림 7〉에서는 각각의 사진들이 불규칙하게 연결되었고, 카메라의 노출 차이, 초점의 차이 등에 의해 원근과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Don + Christopher Los Angeles 6th March'〈그림 8〉는 폴라로이드의 대표 작업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86년 거대한 파노라마 풍경의 포토 콜라주 작품 'Pearlblossom Highway'〈그림 9〉을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사진과 콜라주, 그리고 회화의 종합적인 형태로 폴라로이드 작업에서 보다 좀더 부드럽고 회화적인 포토그래픽 콜라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4년간의 사진 작업은 여러 번의 변화 끝에 그림에 가까워졌으며 호크니는 회화 작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이선미, 1998).

호크니는 1980년대 회화의 문제성을 폴라로이드, 포토 콜라주, 즉 사진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

려고 하였고, 회화의 시각에 대한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지속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풍경화에 귀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는 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을 하게 된다. 1980년 이후부터 호크니의 풍경화 작업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회화작업에서 보이는 연속적 시각구조, 다시점의 시각, 그리고 경계 없는 공간 지각을 분석하여 회화 방식을 확장시켜 파노라마 회화, 대규모 그림 작업과 멀티캐버스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사진 작업은 회화 작업을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여겼던 호크니는 '자연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 속의 '움직이는 순간'을 한 시점에만 고정시키게 되어 고정된 면 이외의 다른 면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그림의 회화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였다(하상희, 2014). 기존 원근법이나 한 장의 사진과 같은 정지된 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시각적 움직임과 그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을 작품 안에서 표현하고자 포토콜라주 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시켰다

1983년 제작된 'Walking in the Zen Garden at the Ryoanji Temple'〈그림 10〉을 살펴보면 그가 여러 장의 사진을 겹쳐 내어 원근법과 공간감을 표현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양미술의 원근법 이론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앞 물체가 뒤쪽 물체보다 작게 하여 원근법과 반대되는 형태를 표현하여 관찰자의 시점이 이동되고 또 다른 시점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원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이재은, 2013). 이러한 작업 방식의 발견은 호크니가 동양 미술, 특히 중국의 산수화에서 나타나는 원근법 표현방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198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960년대 제작된 왕휘의 '강희제납순도권'를 보고 원근법 방식을 기반으로 보는 방식과는 확연하게 달랐음을 인지했다. 이에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향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듯한 표현 방식은 호크니가 회화에 본격적으



〈그림 6〉 David Graves
Pembroke Studios 1982
(출처: <http://www.thegroundmag.com>)



〈그림 7〉 My Mother Sleeping
1982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8〉 Don + Christopher
Los Angeles 8th March 1982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9〉 Pearblossom Highway, 1986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10〉 Walkig in The Zen Garden, Ryoanji
Temple, Kyoto 1983
(출처: <https://www.hockney.com>)

로 복귀한 시기인 1980년대 초 작품에 보여진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포토 콜라주 작업이 서양 미술의 원근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파노라마(panoram)’ 회화 작업을 통해 평면적인 공간표현의 문제에서 탈피하고자 했다(박순기, 2013).

포토 콜라주 제작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파노라마 회화에 대한 연구는 중국산수화의 동양적 원근과 피카소의 다시점 표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동시점’을 가진 움직이는 그림 제작으로 이어진다. 1980년 제작된 ‘Mulholland Drive: The Road to the Studio’〈그림 11〉는 6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관람객이 그림을 관찰하면서 작품속의 길을 따라 함께 여행하는 듯 움직임을 느끼도록 의도된 작품이다. 호크니는 예술적 시

각이 파노라마 회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은 같은 개념임을 강조하고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또한 호크니의 ‘보는 방식’은 ‘움직이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임을 강조했다(전영백, 2018). ‘Nichols Canyon’〈그림 12〉에서 보여진 표현 방식은 ‘The Road to Malibu’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두개의 캔버스를 연결한 대형 파노라마 회화 ‘A Visit with Christopher and Don, Santa Monica Canyon’〈그림 13〉은 호크니의 지인 크리스토퍼가 살고있는 집을 방문하는 과정을 제작한 작품으로, 그림에서 움직이는 시점의 표현 방법을 터득한 후 이 작품에서 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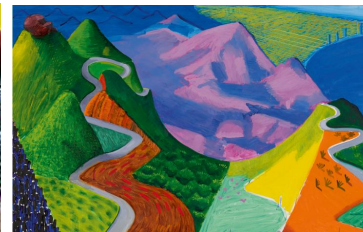
〈그림 11〉 Mulholland Drive: The Road to the Studio, 1980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12〉 Nichols Canyon, 1980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13〉 A Visit with Christopher and Don, Santa Monica Canyon, 1984
(출처: <https://thedauidhockneyfoundation.org>)



〈그림 14〉 Pacific Coast Highway and Santa Monica, 1990
(출처: <https://www.hockney.com>)

의 원근법을 완전히 벗어난 작업을 이루어냈다. 중국의 산수화와 피카소의 큐비즘의 회화의 다시점을 통해 호크니만의 이동시점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이재은, 2013). 호크니는 원근법의 소실점은 무한하며 움직이는 관람객을 통해 역원근법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파노라마 회화를 통해 2차원적인 평면 속에 이동시점을 도입함으로써 3차원적인 공간을 실현시켜 원근법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임정은, 1992). 'Pacific Coast Highway and Santa Monica'〈그림 14〉에서는 1987년에 오페라 무대디자인 제작을 하며 다뤘던 공간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어 그림 전면 에 양쪽에 대칭으로 그려진 붉은 색 길은 무대의 커튼을 연상시키며 중경의 보랏빛 언덕은 전경의 주된 흐름을 끊으며 표현되고 있어 관람자의 시선에서 풍경 속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기에 시각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4) 1990년대

데이비드 호크니는 1991년부터는 컴퓨터 드로잉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전 작품과 비교했을 때 환영적인 방식으로 숨김없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의 표현이 색채와 형태만을 통해 기억과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 드로잉에서 극단적인 추상 작업이 드러났는데 'What About the Caves?'〈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1992년 시작된 연작 'Very New Painting' 작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1990년대 초 오페라 무대 작업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그림 작업에서 멀어졌던 호크니는 컴퓨터 드로잉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무대 디자인 작업에 영향을 받아, 양식화된 형태와 공간 그리고 강렬한 색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반영되었다(마르코 리빙스턴, 2013).

199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는 포토콜라주, 피카소의 다시점, 그리고 풍경화 작업을 종합한 형태



〈그림 15〉 What About the Caves?, 1991

출처: <https://www.hockne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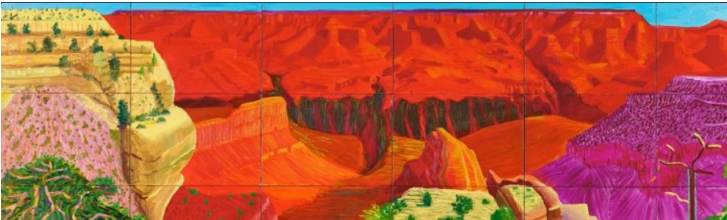
〈그림 16〉 The Road to York through Sledmere, 1997.

출처: <https://www.hockne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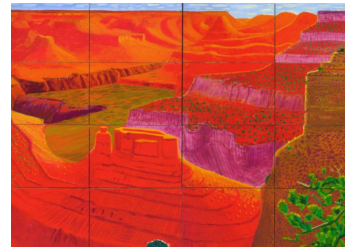
〈그림 17〉 Garrowby Hill, 1998.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18〉 A Bigger Grand Canyon, 1998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19〉 A Closer Grand canyon, 1998

(출처: <https://www.hockney.com>)

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영국의 동 요크셔(East Yorkshire)와 미국의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의 풍경을 담은 대규모 회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요크셔 작품은 1997년 솔테어(Saltaire)에 있는 친구 조나단 실버(Jonathan Silver)의 인종을 지켜주기 위해 웨더비(Wetherby)에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웨더비로 가는 길에 요크(York)를 경유하여 가면서 그곳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The Road to York'〈그림 16〉과 'Garrowby Hill'〈그림 17〉에서 감각적인 색감과 역동적인 구도, 2차원 그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간감을 느껴 마치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생동감을 확인할 수 있다(마틴 게이퍼드, 2012).

호크니는 1998년 미국 유타(Utah)에 잠시 여행 후, 그랜드 캐년(Grana Canyon) 풍경을 담은 파노라마 그림을 제작하였다. 최초의 멀티 캔버스 작업으로 15개에서 60개의 캔버스로 구성된 'A Bigger Grand Canyon'〈그림 18〉 작업 이후 제작된 'A Closer Grand canyon'〈그림 19〉은 96개의 캔버스로 나뉘어져 있다. 전영백(2018)은 이 두 작품에서는 정교하게 구성된 그리드를 느낄 수 있으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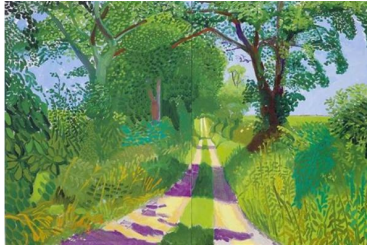
그리드 구조는 포토 콜라주에서 비롯되어 그리드를 염두해 두고 작업했음을 언급하였다.

5) 2000년대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데이비드 호크니는 캘리포니아보다 런던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조나단 실버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호크니는 런던에 머물면서 브리들링턴(Bridlington)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년간 머무르며 끊임없이 변화되는 계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풍경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사진과는 다른 느낌의 리얼리즘에 중점을 두었으며, 초반에는 브리들링턴의 주변 풍경을 그리다가 일년간의 변화되는 과정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던 호크니는 2005년 8월 처음으로 '터널' 시리즈(그림 20, 21, 22, 23)를 그렸다.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터널로, 아치형을 이루며 둥근 형태를 띠어 이름 붙였다고 밝혔다. 같은 공간을 여름과 겨울에 걸쳐 반복해 그려 자연의 풍부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여섯 부분의 캔버스가 조합되



〈그림 20〉 Late Spring Tunnel
May 2006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21〉 Early July tunnel 2006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22〉 Early November
Tunnel 2006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23〉 Winter Tunnel with
Snow March 2006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24〉 Bigger Tree Near Warter or / ou Peinture sur le Motif
pour le Nouvel Age Post-Photographique, 2007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25〉 More Felled Tree on
Woldgate 2008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26〉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출처: <https://www.hockney.com>)

어 하나의 풍경을 이루며, 6개의 정면 시점의 조합으로 다시점을 구현하였으며, 광활한 자연에서 대규모의 회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멀티 캔버스’ 라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였다(전영백, 2018).

그 후 ‘Worldgate Woods’으로 연결되었으며, 50개의 작은 캔버스에 이루어진 작품의 크기는 폭 12미터, 높이 4.6미터로 영국의 시골 풍경을 주제로 하였다. 거대한 크기의 작품 앞에 서면 실제 나무 앞에 서는 경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호크니는 이 그림이 관람자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으며, 사진과 같이 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중국회화와 피카소의 작품을 염두해 두었음을 밝혔으며, 실제로 보면 속도감이 있고, 자유분방하며 동양화 붓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마틴 게이퍼드, 2012).

2007년 호크니는 거대한 회화의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었고, 겨울나무를 주제로 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터 기술

〈표 1〉 데이비드 호크니 회화의 연도별 특성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회화 · 이집트 양식 · 동성애적 성향 · 문자 삽입 · 자연주의 회화 · 구상 + 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주의 거부 · 폴라로이드 (포토콜라주) · 피카소 다시점 (입체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근법 문제 · 포토 콜라주 · 중국 산수화 · 파노라마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드로잉 · 매우 거대한 회화 (파노라마) · 종합적 풍경화, 멀티 캔버스 작업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경화 (터널 시리즈) · 멀티캔버스 진화 · 더 큰 그림
				

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캔버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도록 확인하였다. 미술 작품 중에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 'Bigger Tree Near Warter' (그림 24)를 런던 왕립 미술원에서 발표했다. 이 작업은 작가의 시점 이동과 여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눈에 진실하게 이동하는 시점'을 캔버스에 밀착되게 나타내기 위해 호크니의 그림이 더욱 더 거대해진 것으로 보인다. 6주간 제작된 이 그림에서 오른쪽 구석의 집이나 왼쪽으로 멀리 뻗어 있는 길을 나타내며 전통적 풍경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지만 전경에 그려진 나무의 구조가 공간감이 표현되었다. 50개의 캔버스의 조합은 50개의 시간성을 조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성이 '캔버스'라는 오브제로 물화 된 것이다. 또한 전체가 하나가 될 필요가 없는 열린 구조로 50개를 넘어서 더 큰 그림으로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더 큰 그림(A Bigger Painting)'이라고 불리운다(전영백, 2018).

데이비드 호크니는 2009년에 아이폰을 사용하여 드로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거대한 회화 작품들과 대조되는 꽃 종류와 해변의 일출 등을 그렸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가능한 아이폰 드로잉에 큰 흥미를 느꼈고, 2010년 아이패드를 접한 뒤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며 다양한 질감을 탐구하여 호크니만의 회화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2. 데이비드 호크니 후기 회화의 특성

데이비드 호크니는 1960년대 작품 활동 시작 이후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며 작품에 변화를 주었고 호크니만의 특성을 가진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발전된 데이비드 호크니 회화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응용해 보고자 하였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특성을 살펴보면 포토 콜라주, 다중 원근법, 이동 시점, 빛과 색채의 4가지로 특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 포토콜라주

데이비드 호크니는 자신의 예술 세계가 입체주의와 특히 피카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끊임없이 언급했으며,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포토콜라주 제작을 통해 피카소의 입체주의를 응용한 신입체파적 예술관을 실현했다(박순기, 2013). 피카소와 브라크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 변형의 성질과 추상적 표현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고 사진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나열하여 입체공간을 나타낸 것을 보면 호크니가 형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다. 호크니는 입체주의가 모든 공간에 관한 것이며, 공간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인 것이라 하였다. 호크니는 자연주의 회화 작업에서 벗어나 고자 피카소의 추상예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으며, ‘Weeping Woman’〈그림 27〉 등 피카소의 말년 작업을 재조명하면서 호크니 자신의 그림에서 새로운 표현적 과정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김현아, 2000).

호크니는 포토 콜라주의 작업에서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변화되는 시점을 결합하여 일점원근법적 시점이 복합적인 다중 원근법의 시점으로 전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호크니의 〈Mother 1, Yorkshire Moors, 1985〉〈그림 28〉작품을 일례로 파편화된 단안적인 사진을 중첩시켜 다중적인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중첩시켜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구성한 것이다(정나영, 2016).

데이비드 호크니에게 회화는 화면이 아닌 공간(space)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는 것’에 관계한 다양한 지점을 시각(vision), 시점(viewpoint), 원근법(perspective)로 연결된다. 풍경화는 회화에서 시점에 대한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호크니가 시점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표출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매체로 풍경화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연 풍경에 접근하는 호크니의 실천적 태도는 세잔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으며, 1998년 ‘A Closer Grand Canyon’에서 자연풍경 공간에 대한 세잔의 방식에 근접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호크니는 멀티 캔버스 작업을 통해 거대한 규모의 풍경화 작품도 같은 맥락으로 고안되었으며 점점 더 커지는 ‘더 큰 그림’ 연작의 규모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임을 확인하였다(정영한, 2015).



〈그림 27〉 Weeping Woman, 1937
(출처: <https://arthu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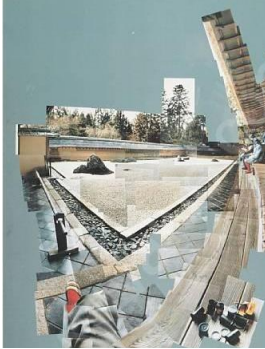


〈그림 28〉 Mother 1, Yorkshire Moors, 1985
(출처: <http://portraitpainting2011.blogspot.com>)

2) 다중 원근법

호크니가 포토콜라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는 중국식 두루마리 그림 작품 쉬양, ‘건륭제의 남쪽 순행, 여섯 번째 두루마리: 쭈저우와 대운하로의 진입’이다. 중국식 원근법에 나타난 평행투시도는 호크니의 포토 콜라주 작업에서 적용된 중요한 기하학 이론이다. 호크니는 기존의 서양식 원근법인 일점원근법을 파괴하고 중국식 원근법을 수용하여 호크니만의 다중원근법으로 체계화 된다(박순기, 2013). 1981년 중국 방문 후 동양 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호크니는 1986년 뉴욕 메트로 폴리탄미술관에서 중국식 두루마리 그림을 접하며 약 27.4미터 길이의 두루마리 그림은 전체를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으며 책으로는 그림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호크니는 이때 자신이 고정된 시점에 갇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한다(마틴 게이퍼드, 2012).

동양화의 산점투시의 특징인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 한 폭의 그림에 서로 다른 시점이 잘 어울리도록 구성하여 서로 다른 시평선과 초점을 생기게 하여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동양화의 산점투시의 특징을 활용한 대표적인 작품은 료한지 사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제작한 ‘Sitting in the Zen Garden at Ryoanji Temple, 1980’〈그림 2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재 제작된 ‘Walkig in The Garden, Ryoanji Temple, 1983’〈그림 10〉 작품은 앉아있는 의자와 지붕의



〈그림 29〉 Sitting in the Zen Garden at Ryoanji Temple, 1980

(출처: <https://www.hockney.com>)



〈그림 30〉 A Walk Around the Hotel Courtyard, 1985

(출처: <https://thedavidhockneyfoundation.org>)

천정이 중첩되는 사진은 다양한 시점과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며 필름통과 무늬가 이어진 형태를 중첩을 통해 원근을 만들어 내어 좀 더 확실하게 다중 원근법과 포토 콜라주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은, 2007).

호크니가 사진작업에서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들과 시간을 담을 수 있는 불연속적인 시공간 구성에 관심을 가졌다면 회화 작업에서는 연속성을 띤 작품을 전개하였다. 〈A Walk Around the Hotel Courtyard, 1985〉(그림 30)에서 포토 콜라주에서 시도된 방식들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평과 수직, 중앙의 시점들이 각기 다르게 상하 좌우로 화면 공간을 구분배치 되어 다중적 공간을 구성하여 원근법이 계속적으로 바뀐다. 전통적 원근법으로 그린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 복도와 정원이지만 우물이 솟아 오라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두루마리 작품에 나타난 형식과 다중적 공간배치가 융합되어 파노라마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다중적 공간 배치가 표현되어 각각의 공간을 따라 시선이 이동되면서 동감을 느끼게 하여 하나의 화면에 연속적인 다중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박순기, 2013).

3) 이동시점

데이비드 호크니가 회화에서 ‘이동시점’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서양식 원근법원리인 일점원근

법과 중국 두루마리 회화에서 영감을 얻은 중국식 원근법인 평행 투시도법이라 할 수 있다. 일점 원근법은 하나의 시점으로 고정되어 고정된 시점 이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입체주의 작가 피카소의 큐비즘(다시점)적 표현과 ‘움직임’을 내포하는 중국 산수화의 원근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재은, 2013).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980년대 피카소의 큐비즘(다시점)에 영향을 받은 포토콜라주와 중국 산수화를 통해 얻은 파노라마 회화 작업들이 종합적으로 중첩되어 멀티 캔버스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최초의 멀티 캔버스 작업은 〈A Bigger Grand Canyon, 1998〉(그림 18)으로 60개의 개별 캔버스로 그리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의 복수 구조를 나타낸다. 그는 캔버스라는 오브제를 통해 평면성을 탈피하였고 공간성을 높였다. 2000년 이후 호크니는 사진의 시점과는 다른 세상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하며 멀티캔버스라는 독자적 방식을 통해 대규모 회화를 제작하였다(전영백, 2018).

호크니는 〈A Closer Grand Canyon, 1998〉(그림 19)의 작업을 위해 그랜드 캐니언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고, 어떤 사진도 그 실물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관찰했으며, 호크니는 공간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마틴 게이퍼트, 2012). 호크니는 풍경화 작업을 통해 작

가의 시점의 이동과 시간(움직임)이 호크니의 '이동시점'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림은 점점 커졌으며 가장 큰 작품인 〈Bigger Tree Near Warter〉(그림 24)에서 전경을 가득 메우는 나무 구조와 복잡한 가지들이 50개의 캔버스로 연결하였으며, 50개의 각기 다른 시간성이 조합된 것이다. 인간이 보는 공간의 범위가 무한함을 나타내며, 호크니 그림의 제목이 〈A Bigger Painting〉인 이유이기도 하다(전영백, 2018).

4) 빛과 그림자

데이비드 호크니는 마틴 게이퍼드와의 대화에서 '언제나 그림자들을 눈여겨본다'고 언급하면서 전시실의 입체파 조각들에 비춰진 조명에 의한 그림자는 3차원 공간을 느끼게 해주지만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평면이 된다는 사실을 흥미로워 하였다. 〈A Less Realistic Still Life, 1965〉 작품에서 그림자를 비롯해 공간감을 자아내는 여러 요소들을 활용하여 사실성을 높였으며, 이에 마틴 게이퍼드는 그림에 빛과 그림자 표현을 통해 기하학 형태들의 추상적 배치에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데이비드 호크니. 마틴 게이퍼드, 2016).

1960년대 호크니의 자연주의적 경향에 나타난 특징은 로스엔젤레스의 풍경과 빛, 색채의 영향이 컸으며 1960년대 중반 수영장 시리즈 작품에서 보여지는 전원 환경과 정확한 인물 묘사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낭만적인 색과 빛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김현아, 2000), 색채 연구자들은 푸른색(추운 색)계통은 음성적이고 후퇴적이며 침착한 반면에 주황색(따뜻한 색) 계통은 양성적이며 적극적이고 약동이라고 하였다(매들랜드 그레이브스, 1983; 박순기, 2013에서 재인용).

호크니 포토콜라주 작품 〈Pearblossom Highway, 1986〉(그림 9)에 나타난 색채 특성인 하늘은 푸른색, 땅은 노란색 계통을 배치시키고 땅의 왼쪽은 자연의 색 녹색으로 오른쪽은 인공의 색을 황적색으로 배치시켜 2분화 형식에 의거한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다. 색채 이론과는 반대로 음성적이라는 푸른색은 약동하듯 보이며 교통 표지판은 붉은 색, 동그라미는 떠오르는 태양 처럼 보이고 있어 역설적이며, 〈Mulholland

Drive: The Road to the Studio, 1980〉(그림 11)에서도 탈 원근법적인 색상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색상은 호크니의 다른 풍경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생상들이 켈트처럼 섞여 있어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차원 공간으로 변환되었다. 또한 후퇴하는 색과 약동하는 색들이 수시로 교차되어 호크니 자신이 원하는 색들로 구성하여 다차원 공간 구성이 느껴지도록 적용된다(박순기, 2013). 또한 느슨하게 흐르는 붓질과 밝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점은 주목 될 만하다(전영백, 2018).

데이비드 호크니의 후기 회화 작품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Ⅲ. 데이비드 호크니 후기 회화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 슈즈 일러스트레이션 전개

최근 패션 분야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영감을 받거나 협업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 영역 또한 매우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호크니의 회화에서 일관성 있게 드러났던 '보는 방식'의 문제인 시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호크니의 다양한 작업방식을 분석하여 본 연구자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전개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소재로서 하이힐 슈즈를 선택하였다. 슈즈는 패션을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으로,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아이템으로써 중요한 패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코디네이션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서 최근에는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데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매 시즌 디자이너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다.

슈즈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을 위하여 호크니 회화 2000년대까지 총 4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의 회화 특성을 패션 슈즈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하였다. 먼 캔버스 5호 F (348x273) 사이즈 4개를 한 세트와 하여, 총 4세트 16개의 작품을 제

〈표 2〉 데이비드 호크니 후기 회화의 작품 특성

구분	특성	작품 사례
포토콜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주의(피카소)의 추상적 표현 및 모자이크 형식에 영향 폴라로이드 사진 중첩 실험을 통해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이 동시 존재(포토 콜라주 발전) 호크니의 후반 회화작업 형식의 토대 	
다중원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식 원근법을 통해 서양식 원근법의 한계 극복 중국식 원근법에 나타난 산점투시법을 응용하여 파노라마 회화 발전 	
이동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포토콜라주 형식과 중국식 원근법에 영감을 받은 파노라마 회화 작업을 토대로 종합하여 '거대한 회화', '멀티캔버스'작업을 통해 호크니만의 이동 시점 구현 	
빛과 그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자를 통해 공간감과 사실성 강조 1960년대부터 자연 풍경에서 느껴지는 빛과 색채에 주목 보색 대비, 명도 대비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다차원 공간구성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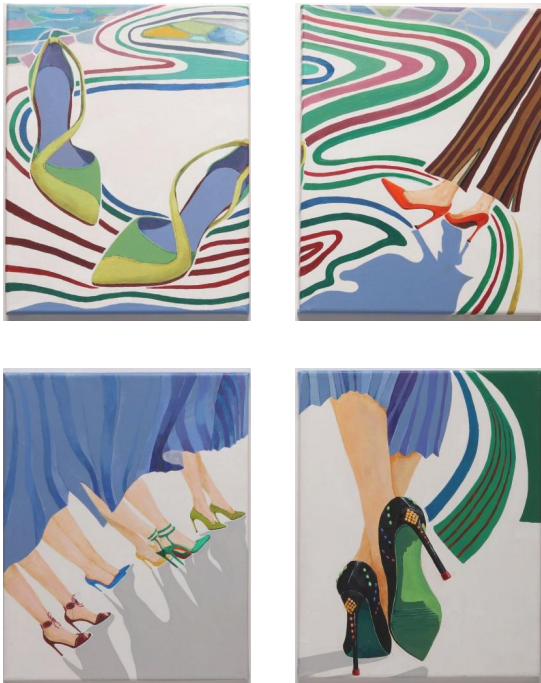
작하였으며,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나타난 회화적 특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명한 색상과 깊이 있는 채색을 위해 Gesso를 베이스로 Golden사의 Artist Color와 색채의 자연스러운 혼합과 부드러운 터치를 위해 Retarder를 사용하여 회화적 감성의 패션 슈즈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였다.

2. 슈즈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작품 1은 면 캔버스 5호 F(348x273) 각 4개가 1세트로 구성되었다. 호크니는 1980년대 중국 두루마리 회화에 나타난 관람자가 좌에서 우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듯하게 그리는 시점, 즉, 시점이 여러 개로 존재하며(다시

점), 정착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으며(산점투시), 공간이 인간 위주가 아니라 자연 위주로 정렬되어 있어 자연주의 사상이 깔려 있는 동양적인 시점에 영감을 받았다.

이러한 특성은 호크니의 'Garrowby Hill, 1998<그림 11>'에서 '다중원근법'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이동하는 듯한 구도의 특성과 근경과 원경의 명도 대비와 색채대비, 자연 풍경에서 느낄 수 있는 보색대비를 활용하여 패션 슈즈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하였다. 'Garrowby Hill'의 구불구불한 길은 작품에서 곡선과 색채의 채도 조절로 표현하였으며, 슈즈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 실루엣을 활용하여 공간감(거리감)을 의도하였다. 슈즈의 색상 및 디자인은 호크니의 그림에 나타난 색채를 최대한 활용하였



〈그림 31〉 작품 1의 전체 구성 작품



〈그림 32〉 작품 1의 전체 구성 작품

다(그림 31), (그림 32).

작품 2의 모티브로 응용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More Felled Tree on Woldgate, 2008'는 호크니의 작품 특성인 이동 시점과 다중 원근법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캔버스를 조합하여 거대한 크기로 제작된 멀티 캔버스 작업 형태이다. 본 작품도 멀티 캔버스 형식에 맞춰면 캔버스 5호 F(348x273)에 캔버스 4개를 1세트로 한 화면 구성을 통해 작품 특성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근경에는 높은 채도와 원경에는 낮은 채도 및 낮은 명도를 통해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호크니 작품에 나타난 풍경화의 표현요소를 본 작품에 의류 및 슈즈의 패턴으로 재구성하였으며, 4개의 캔버스를 그림자를 통해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한 세트이기도 하면서 개별로 보아도 특성 요소가 드러나도록 의도하였다(그림 33), (그림 34).

작품 3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그림 35)을 모티브로, 호크니 작품 특성인 이동시점에 영향을 받은 파노라마 회화

와 다중원근법이 중첩되어 발전된 멀티캔버스 형식으로 본 연구의 작품에도 이러한 멀티캔버스 형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파노라마 형식을 적용하기 위해 캔버스 구도를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풍경화에 등장된 많은 나무 기둥들의 형태가 간결하면서도 채도와 명도 차이를 통해 깊은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어, 작품 제작에서도 간결한 나무 형태를 의류 소재 및 패턴이 되도록 굵기 조절, 채도 조절을 설정하였으며, 슈즈의 실루엣을 나뭇잎으로 활용하였다. 호크니의 작품에 꾸준히 드러나는 자연풍경의 빛에서 느껴지는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그림자의 보색 사용과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걸어가는 듯한 방향성을 주어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유도하였다. 멀티 캔버스 형식에 맞춰면 캔버스 5호 F(348x273)에 캔버스 4개가 한 세트로 구성 되어있지만 각 개별로 보아도 그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도의 차이와 방향성의 차이, 채도, 톤, 그림자 형태의 차이 등을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제시하였다(그림 35), (그림 36).



〈그림 33〉 작품 2의 구성



〈그림 34〉 작품 2의 전체 구성 작품



〈그림 35〉 작품 3의 구성



〈그림 36〉 작품 3의 전체 구성

작품 4에 응용된 〈Mulholland Drive: The Road to the Studio, 1980〉(그림 15) 작품은 호크니의 중국 회화에서 영향을 받은 산점 투시가 적용되어 공간 확장을 위해 파노라마 형식의 회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대표 작품으로, 호크니의 이동시점과 다중원근법이 잘 드러나 있다. 본 작품에 파노라마 형식을 적용하고자 면 캔버스 5호 F(348x 273)를 세로로 4

개를 나열하여 확장된 공간감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Mulholland Drive: The Road to the Studio〉 작품의 상단 부분에 표현된 곡선의 구불구불한 형태를 차용하여 드레스 및 스커트 형식으로 적용하였으며, 풍경에 표현된 요소들을 슈즈의 색상과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또한 왼쪽 부분에는 사람이 걸어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오른쪽 부분에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림 37〉 작품 4의 구성



〈그림 38〉 작품 4의 전체 구성

설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자의 다양한 방향성 표현과 명도 조절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어 호크니 회화 작품에 나타난 ‘이동시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37), (그림 38).

IV. 결론

오늘날 현대 예술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영역간의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예술성과 독창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패션 이미지 전달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은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전 디자인 영역, 문화, 사회적 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사례가 점차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과 함께 마케팅 전략도 시

너지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다양한 활용 요구를 인식하여 데이비드 호크니의 후기 회화 작품과 그 특성을 바탕으로 회화의 감성을 담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전개하였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순수 회화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통해 호크니만의 독자적인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후기 회화라 판단되는 1980년대 이후 작품에서 보여지는 작품 특성을 포토 콜라주, 다중 원근법, 이동 시점, 빛과 색채의 4가지로 도출하였다. 슈즈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전개를 위해 작품 특성으로 도출된 특성을 반영하여 면 캔버스 5호 사이즈 4개가 1세트로 구성되어, 총 4세트, 총 16개의 작업

으로 전개하였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소재로 여성스러움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이힐을 주제로 패션 액세서리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을 목표로 하였다.

작품 제작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특성을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전개는 순수 예술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적용시켜 조화를 이루었으며 독자적 예술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나타난 호크니의 차별화된 예술 세계, 표현 기법, 감각적인 색채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응용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회화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영감과 모티브를 제공하며 인간의 다양한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의류에 중점을 두었던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하이힐이라는 패션 액세서리 소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 아이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즈를 대상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회화 작품을 적용한 슈즈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개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중요성과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향후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행지. (2012). 데이비드 호크니의 초기 구상 회화에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와 평면 인식에 관한 연구. *서양미술사학회*, 37(35), 109-143.
- 김현아. (2000). *데이비드 호크니 조형론*.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데이비드 호크니. (n.d.). 20세기 영국이 낳은 거장! 팝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 자료검색일 2020. 12. 12, 자료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656258976931081666/>
- 마르코 리빙스턴. (2013). *데이비드 호크니*(주은정 역). 시공사: 서울.
- 박순기 (2013). *데이비드 호크니의 포토콜라주에 나타난 현대 기하학과 시각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선. (2017). '플렉' 뉴욕패션위크서 팝아트 담은 17S/S 공개. 자료검색일 2020. 11. 20,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fashionbiz_/220764902460
- 윤대영. (1999).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작품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1998). *데이비드 호크니의 다중원근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7). *데이비드 호크니의 다중원근법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 (2013).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에 나타나는 이동시점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도현. (2007). *데이비드 호크니의 포토콜라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백. (2018). 데이비드 호크니의 '눈에 진실한' 회화: 1980년대 이후 반원근법, 비사진적 풍경화를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 153-181.
- 정나영, 정은영. (2016). 에드워드 호퍼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나타난 시선과 응시의 교차에 관한 소고. *기초조형학연구*, 17(6), 539-550.
- 정미정, 조기주. (2016). 불안과 연극성이 표현된 회화 연구 - 호크니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8(8), 199-224.
- 정영한. (2015).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큰 그림>-회화의 시각과 시점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지*, 16(5), 605-617.
- 정효신. (2016). '휴고보스' 17 S/S 뉴욕컬렉션서 공개. 자료검색일 2020, 11, 20, 자료출처 <http://www.fashionbiz.co.kr/TN/?idx=156338>
- 하상희. (2014). *중첩 구조로 표현된 이중적 시각의 시각화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승연. (2019). *그로테스크의 특징을 활용한*

-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21(1), 35-45.
- Arthur. (n.d.). Pablo Picasso, A Weeping Woman, 자료검색일 2020. 12. 12, 자료출처 <https://arthur.io/art/pablo-picasso/a-weeping-woman>
- Hockney, D. (n.d.). works. 자료검색일 2020, 12, 5, 자료출처 <https://www.hockney.com/works>
- Gayford, M. (2012). *다시, 그림이다 (A) bigger message : conversations with David Hockney*. 디자인 하우스: 서울.
- Portrait painting. (2011. 11. 30). David Hockney mother 1, Yorkshire Moors 자료검색일, 2020. 12.12, 자료출처 <http://portraitpainting2011.blogspot.com>
- The David Hockney Foundation. (n.d.). 자료 검색일 2020. 12. 12, 자료출처 <https://thedavidhockneyfoundation.org>
- Tim Blanks. (2013, 6, 17). Burberry Prorsum spring 2014 menswear. 자료검색일 2020, 12, 2,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menswear/burberry-prorsum>

